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사료내 항콕시뚱제 사용 허용” 건의

본회는 정부시책에 따라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제도의 미흡한 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육계 및 계육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8월 23일자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부서에 아래와 같이 “사료내 항콕시뚱제 사용 허용”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료내 항콕시뚱제 사용 허용 건의〉

■ 현행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인증 관련 제도 현황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3]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위해 가축에 급여하는 사료에는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은 첨가할 수 없음
 - 다만,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한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은 사용 가능
 -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치료는 가능하나 해당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
- 무항생제 축산물인증 목적이 아닌 일반가축의 사료에는 항콕시뚱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
 - 2011년 7월 1일부터 항생제 사용은 전면 금지

■ 항콕시뚱제 미사용으로 인한 실태

- 동물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육계농가에서 생후 17~18일령에 “괴사성 장염”이 빈발하고, 특히 콕시뚱증에 감염되었을 경우 장염악화로 피해가 커짐
 - 육계의 경우 장염발생으로 폐사율 2% 증가, 사료요구율 0.1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동물약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육계의 특성상 사육기간이 30일 전후로 되어 있어 처방에 의한 동물약품 사용 어려움 상존
 -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소형닭 생산을 주로 하고 있어 백신에 의한 충분한 보상성장기간 부족으로 농가에서는 사용 기피
- 항콕시뚱제는 장내 정상세균총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아 인체에 내성을 유발할 기회가 적으며, 치료대상 미생물인 콕시뚱은 인수공통전염병인체가 아님
- EU의 경우 항생제 사용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항콕시뚱제 사용은 현재까지 허용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육계농가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항콕시뚱제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망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운용 대행 용역 입찰공고

■ 오는 9월 14일까지 입찰서제출

본회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와 우수성을 전달하여 소비촉진에 기여코자 매체홍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본회는 행사 대행사 선정을 위해 지난 4일 '2012 닭고기 우수성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운용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했다.

이번 홍보사업은 총 3억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방송매체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방영 등)와 온·오프라인 홍보(지면매체, 온라인, 프로모션 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오는 9월 14일(금)까지 입찰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 참조('입찰공고'는 P82 참조).

- 문의 : (031)707-5722
- 홈페이지 : www.chicken.or.kr

삼계위원회 개최

■ 삼계 수급동향 등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8월 23일 대전 유성 소재 한 음식점에서 삼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삼계 수급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후 입식수수를 전년 동기 대비 95% 수준으로 감축키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2년 하반기 축산물 가격전망과 대응 워크숍 참석

■ 육계가격 안정을 위한 의견 제시



본회는 지난 8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2년 하반기 축산물 가격전망과 대응 워크숍'에 이재하 부장이 참석해 육계 가격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본회를 비롯 농림수산식품부, 양계협회, 오리협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농경연 우병준 축산관측팀장의 '축산물 가격전망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각 축종별(한우, 낙농, 돼지, 오리, 산란계 등)로 가격전망과 함께 업계내에서 추진 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및 대정부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 이재하 부장은 육계가격 안정을 위해 종계의 조기도태(60주 이상 ⇒ 55주 이하)와 육계입식자제를 통한 공급물량 감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강화와 수입검역강화로 수입육 대응, 생산비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관리차원의 정부대응과 할당관세적용 수입추진 등에 대한 방어 요청, kg당 거래방식 도입을 통한 업계손실 방지 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건의했다.

『월간 닭고기』 창간 17주년 기념 이벤트 종료

■ 전문지 기자단 당첨자 추첨



2012년 7월 ‘월간 닭고기’ 창간 17주년을 기념하며 실시한 ‘창간 17주년 기념마크를 찾아라’ 이벤트가 8월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답자 중 17분을 추첨했다.

이벤트에 당첨된 17분께는 9월 말까지 본회 회

원사인 (주)하림의 삼계탕 선물세트를 응모한 주소지로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

〈당첨자 명단〉

이름	주소
강민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김명남	전북 익산시 석탄동
김아람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김재현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김현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곽혜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박상환	충북 청주시 봉방동
박정숙	전북 군산시 수송동
백 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양유진	충남 논산시 부창동
이승욱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이재은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장세열	전북 군산시 심학동
조은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현신애	인천 서구 왕길동
현종화	충남 아산시 배방읍 구령1구



“회원사의 소식을 보내주세요”

『월간 닭고기』에서는 ‘회원사 소식’ ‘업계 소식’ ‘회원사 탐방’ ‘회원사 제품소개’ 등의 코너를 통해 본회 회원사의 소식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사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준회원사, 농가회원 포함)께서는 단신이나 회사소개 내용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육계 및 계육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내용을 작성하시어 매달 20일까지 보내주시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소식 보내실 곳

- 취재문의 : (031)707-5722~4
- 팩 스 : (031)707-5725
- E-mail : hj@chicken.or.kr
- 웹하드(www.webhard.co.kr)
ID : chicken PW : 1111
→ ‘닭고기원고’ 폴더

